

자기소개서

소속	○ ○ 중학교	직위	교사	성명	○ ○ ○
----	---------	----	----	----	-------

1. 성장배경

1-1. 성장기

저는 유년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남 부러울 거 없이 풍요롭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위로는 12살 띠동갑 누나로 시작해서, 5살 위 누나가 있고, 최근 책을 한 권 펴낸, 5살 아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조선소에서 일하는 형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한때 매우 어려운 성장기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끼리만 거의 10년 동안 캄캄한 터널 속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몸져누우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홀로 어린 자식들을 힘들게 길러주시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장기의 경험을 살려 저는 가끔 학생들이 가족 관계로 힘들어하거나 궁핍한 경제 사정으로 힘들어할 때 조심스럽게 제 유년과 청소년기에 겪었던 한 토막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1-2. 교직 생활기

<거제수산고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9월 발령을 받은 초임 교사 9명이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전보 내신으로 공석이 된 담임선생님 업무에 지원할 3명의 초임 교사를 찾았습니다.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손을 높이 들었고, 곧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급 학생들이 하루를 마다하고 6, 7명이나 무단결석을 했습니다. 저는 군내 버스를 타고 구석구석 가정방문을 갔으며, 학급을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온갖 처방전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지난 뒤 저는 제법 학생 지도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학생들과 때로는 친구, 때로는 진학/진로를 맞춤형으로 걱정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 단성고등학교>로 전근하여 순박한 농촌지역의 고등학생들과 행복한 학교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20대 말, 30대 초, **교육에 대한 열정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온 첫 번째 시기**였습니다. 3학년 담임을 연이어 3년 동안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실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해진 야간자율학습을 한 시간 늘려달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님과 상의한 뒤, 집 근처까지 태워주기를 3개월 동안 연속한 2학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멀리 집에 도착하면 자정이 훌쩍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풍족하지 못한 학습 여건에서도, 학생과 선생님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함께 공부하고, 맞춤형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하면, 각자 원망하는 학과의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신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직전 고등학교에서 저를 눈여겨보았던 저가 지금도 존경하는 선생님 권유로, 전근하고 바로 연구기획 업무를 맡아서 3년 동안 학

생들과 함께 교내 축제를 근사하게 엮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참, 그 당시 000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텔레비전 방송 촬영 때는 동과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학생들에게 영어 문제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학교의 영어 선생님들과 함께 읽기 문제를 개발하여 CD를 제작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중앙고등학교> 개교와 함께 새로운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13개 학급으로 이루어진 3학년 담임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의 진학/진로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개교에 즈음한 학교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산더미 같은 난제들을 동료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유효한 방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치열하게 토의하던 동료 선생님들의 혜안(慧眼)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함양제일고등학교>와 <화개중학교>를 거쳐, <삼천포중앙고등학교>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저의 두 번째 교직 생활의 황금기가 활짝 열렸습니다. 첫째 고3 여학생반 담임이 되었습니다. 소녀 가장 학생을 만났고, 저는 처음으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연구부장을 하면서 학교 축제를 더한층 완성도 높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학생들로만 구성된 '교내 축제 진행위원회'가 기획, 준비, 진행, 평가를 자치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어 3학년 담임과 부장 업무를 맡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3 수험생들과 교육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은 그때 거의 전부 다 추진했습니다.

이번 공모제 교장에 도전할 때도 각오를 한 뒤 제일 먼저 관내 중고등학교를 탐방했듯이, 당시에 진학/진로 농사를 유례없이 풍성하게 짓기 위해, 혼자 경남에서 진학지대로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들을 두루 탐방하였습니다. 주말에도 학교 주차장에 여러 대의 차가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차는 한 대 주차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고3 수험생들이 넓은 열람실을 가득 메우고, 자기 주도적 자율학습을 하는 고등학교도 있었습니다. 당시 국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탐방을 마치고 3학년 부장으로서 바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곤양고등학교>의 교장이 된다면, 9월 1일부터 바로 고3 수험생들과 야간자율학습 시간과 주말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일반 학교의 단점을 보완한 대안학교를 하나 설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 저의 근무처인 <경남꿈키움중학교> 개교에 동참하였습니다. 일반 중학교와는 성격이 매우 다른 공립 대안중학교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들과 다양성을 쫓아서 찾아온 학생들입니다. 국어와 사회 교과를 50%만 확보하면 됩니다. 나머지 교육과정은 3주체의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토의를 거쳐 철저히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편성하고 운영합니다. 8년에 접어든 지금은 중학생들인데도 대학생들 못지않게 자신의 선택과목들을 능숙하게 선택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수강생들이 몰려들면 가위바위보를 통해 정하므로 안타까움이 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학기나 한 학년이 지나면 그 과목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재차 주어집니다. 지금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제도적으로 매우 안정된 속에 변화를 거듭합니다.

대안학교에서 이러한 저의 전문성 있는 다양한 경험들은 벌써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가 곤양고등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는데 중요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또한 때로 느티나무 아래서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영어 수업과 지난 6년 이상 동안 맡아온 대안 교과 노작 활동반 수업은 학생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성장한 저는 부지런함은 체화되어 있어도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어본 일은 없었지만, 지금은 약 80평쯤 되는 학교 텃밭에서 학생들과 함께 10가지도 넘는 유기농 농작물을 정성껏 재배하고 있습니다. 급식소에도 가져다주고 전교생의 가정으로도 보내며 동료 선생님들에게도 나눠 드립니다. 올해는 수박도 몇 포기 심었는데 3주체와 나눠 먹을 것을 생각하니 벌써 기분이 좋아집니다.

2. 지원 동기

2-1. 순수한 꿈을 꾸다

아주 황당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학교를 설립하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안학교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가칭 학교 이름도 지었고, 교육철학과 총론 및 각론들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곳에 자리 잡은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를 자력으로 세우지는 못했지만, 드디어 대안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7년하고도 3개월 동안 대안교육에 매진했습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현저히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학부모님들께서 만족하고 감동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뿌듯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교육의 새로운 흐름인 미래교육, 행복교육, 혁신교육, 공간혁신, 맞춤형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들을 시행착오를 더하며 실천해보았습니다.

2-2. 새로운 꿈을 꾸다

마침내 저는 이번에 곤양고등학교 공모제 교장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학교를 세우지 못한다면 공모제 교장에 발탁되어 제일 먼저 학교의 당면 과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시대를 앞서가며 미래를 선도하는 학교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본디 변화와 도전을 좋아하고 문제해결을 즐기며 반성을 통해 더한층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끝으로 공모제 교장이 되어 9월 1일부터 당장 실천하고자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나열해 봅니다.

3. 교육철학 및 학교경영 전략

3-1. 교육철학

첫째,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둘째, 혁신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동료 선생님들을 무한 신뢰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셋째, 새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주중, 야간, 주말에도 항상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 교육과정을 때맞춰 추진하도록 교육경비와 발전기금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학생 및 학교발전을 위해, 4주체와 항상 소통하고 협업하겠습니다.

일곱째, 학교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년도 신입생 유치를 위해 체계적인 전략과 지혜를 모아 열정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여덟째,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맡기고 대학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3-2. 학교경영 전략

궁극적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공모 교장 제출 서류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거시적 교육철학과 학교경영 전략보다는, 담임선생님, 3학년 부장, 진학/진로 및 교감을 대신하여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다양한 책무와 각오에 대해 미시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는 전적으로 곤양고등학교가 오랫동안 알아왔고 고민해온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재학생의 실력 향상과 학생 재원 확보**를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